

1 JANUARY 2024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우리민속 한마당



# 우리민속 한마당

1월 토요일상설공연 | Saturday Performances for January

2024년 1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국립민속박물관 공연장  
January, Every Saturday at 3 p.m. Museum Theater



고독과 고요 그리고 용기  
Solitude, Tranquility, and Courage  
1. 6. SAT 3:00pm



위뮤의 여섯거리  
WeMu's Six Stories  
1. 13. SAT 3:00pm



시간(時間)의 가지에 꽃피다.  
Blooming on the Branch of Time  
1. 20. SAT 3:00pm



기억의 흔적 (창과 소리)  
The Trace of Memory  
1. 27. SAT 3:00pm

※ 공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schedule and content of the performances are subject to change due to circumstances.

※ 공연 중 허가되지 않은 촬영 및 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Unauthorized filming and recording are prohibited during the performance.

※ 무료 공연, 좌석 배정은 선착순입니다.

Free performance(Seating i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2월 공연일정 미리보기

February Performance Schedule

### 토요상설공연 | Saturday Performances

- 2. 3. SAT **정도겸의 전통춤 '운빈아미(雲鬢蛾眉)'**  
Jeong Dogyeom's Traditional Dance 'Woonbinami'
- 2.10. SAT **설 당일 박물관 휴관**  
The Museum is closed on Seollal (Lunar New Year's Day)
- 2.17. SAT **툰: 털어내다**  
Tun 'Sweep Off'
- 2.24. SAT **북녘의 전통성악 서도소리**  
Traditional Song of the North 'Seodo Sori'





百子千孫

松竹紫華紅

華才





# 고독과 고요 그리고 용기

Solitude, Tranquility, and Courage

2024. 1. 6. SAT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장 Museum Theater

## 공연내용

이번 무대 한강의 소설 <흰>에서 인용된 “고독과 고요, 그리고 용기”는 삶과 죽음 그리고 승화라는 한국의 철학적 요소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프롤로그 <흰 돌>에 이어 동해안 굿의 푸너리 장단에 구음과 아쟁 선율로 구성된 <푸너리 산조>, 교방의 민속춤 중 토속적인 흥과 멋이 돋보이는 권명화 명인의 <소고춤>, 그리고 고구려인의 상무적 기풍이 담겨있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가 선보여진다. 다음 무대 <무당춤>은 무속 의례에서 굿을 할 때 초월적인 존재와 교섭하기 위해 무당이 추던 춤을 토대로 창작된 춤으로 검기무, 지전춤, 그리고 대부채춤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도 시나위 가락에 맞춰 평양권번에서 추어지던 평양살풀이 <부루나 수검춤>과 권명화 명인의 구음 고풍이로 구성된 <백발>이 무대의 막을 내린다.



대표 | 김유미(자작무브먼트 대표)

출연 | 김유미, 김응민, 김호연, 정예영, 전해정, 박정민, 임재서, 이민애, 조송인

사회 | 김서연



## Performance Description

This performance, titled "*Solitude, Tranquility, and Courage*" quoted from *The White Book* by Han Kang, aims to reinterpret Korea's tradition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life, death, and sublimation, from a modern viewpoint.

The stage opens with *'Prologue\_White Stone'*, followed by *'Puneori Sanjo'* a free-style dance that consists of the shamanic ritual rhythm of the East Coasts, an oral sound, and the melody of *Ajaeng* (7-stringed zither). Subsequently, Kwon Myunghwa-style *'Sogochum'*, one of the *Gyobang* drum dances, characterized by the folksy *heung* (fun) and *meot* (style), *'Pyongyang Geommu'* a sword dance that shows the martial and patriotic spirit of *Goguryeo* people, and *'Mudangchum'*, a creative dance composed of *Geomgimu* (Sword dance), *Jijeonchum* (a female solo dance with long white paper bundle), and *Daebuchaechum* (Fan dance), which originated from shaman's dance performed in the rite to share spiritual communion with supreme-being, will follow. Last but not least, *'Bruna Sugeonchum'* a handkerchief dance performed to the melody of *Seodo Sinawi* in *Pyongyang Gwonbeon*, and Kwon Myunghwa's the requiem for dead 'White Hair', will close the stage.

## 공연순서 Program

1. 프롤로그 흰 돌 Prologue\_White Stone
2. 푸너리 산조 Puneori Sanjo
3. 소고춤 Sogochum
4. 평양검무 Pyongyang Geommu
5. 무당춤 Mudangchum
6. 부루나 살풀이 Bruna Salpuri
7. 에필로그 백발 Epilogue\_White Hair





# 위뮤의 여섯거리

WeMu's Six Stories

2024. 1. 13. SAT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장 Museum Theater

## 공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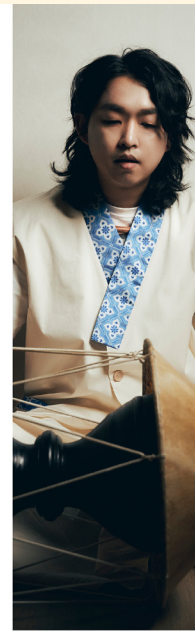
〈음악제작소 WeMu〉는 한국의 전통 무속장단과 선율을 응용하여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창작하는 팀이다. 본인들이 속한 전문적인 분야로의 귀결을 넘어 대중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첫 도전을 응원하는 〈오프닝 곡 터굿〉을 시작으로 서울 재수굿의 음악적 특징들을 활용한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는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어-허굿짜〉, 〈굿, Bye〉, 동해안별신굿의 구음 선율과 장단을 응용한 〈거드령〉, 각 지역의 무속음악을 소재로 재해석한 〈Not, 부정〉과 〈노리굿〉이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도민요 배치기의 노래 선율과 서도굿의 자진만세발이에서 사용되는 태평소 선율을 차용해 만든 응원가 〈얼씨구 얼싸〉가 이어진다.



대표 | 김윤만 (음악제작소 WeMu 대표)

출연 | 김윤만, 박주화, 김송지, 이찬우, 김현직, 강다연, 채수빈





## Performance Description

<Music Production WeMu> is a group that creates a new form of music by utilizing Korea's traditional shamanic beats and melodies. They aim to increase the popularit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y creating music that goes beyond coming back to the professional fields they belong.

As the saying goes, "Step off on the right foot", *'Opening Teogut'* will begin the stage by blessing everyone's first attempt, followed by *'Eo-Heogutjja'* an elating and energetic song that utilizes musical characteristics of Jaesugut in Seoul, praying for the good health and fortune of the audience. Subsequently, *'Gut, Bye'*, and *'Geodeuleong'* which employ the melody of *gueum* (Mimicry of instrumental sounds) and the rhythm of *Donghaean Byeolsingut* (Communal rites of the East coast), will follow. Then, the stage goes to *'Not, Deny'* and *'Norigut'*, which are reinterpretations of local shamanic music. Last, *'Eolssigu Eolssa'* a cheer song created by employing the melody of *Baechigi* (Seodo folk song) and the rhythm of *Taepyongso* (Conical oboe) from *Jajin Mansebati* (Seodo rite song), will close the stage.

## 공연순서 Program

1. 오프닝. 터굿 Opening Teogut
2. 어-허굿짜 Eo-Heogutjja
3. 굿, Bye Gut, Bye
4. 거드렁 Geodeuleong
5. Not 부정 Not, Deny
6. 노리굿 Norigut
7. 얼씨구 얼싸 Eolssigu Eolssa



# 시간(時間)의 가지에 꽃피다.

Blooming on the Branch of Time

2024. 1. 20. SAT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장 Museum Theater

## 공연내용

이번 무대 <시간의 가지에 꽃피다>는 궁중정재의 절제된 미와 한국 전통 민속춤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첫 무대로 나뭇가지 위에서 노래하는 피꼬리의 자태를 무용화한 작품으로 궁중무용의 꽃이라 불리는 <춘앵전>을 선보인다. 이어서 궁중정재 중 역동성과 기백이 돋보이는 <검기무>, 윤윤석류 아쟁산조에 맞춰 안무한 창작무 <산조춤>, 풍류를 즐기는 옛 선비의 모습을 춤으로 형상화한 <선비춤>, 한국 근대무용의 대가 한성준이 경기도당굿의 장단에 맞춰 안무한 <한영숙류 태평무>가 선보여진다. 마지막 섬세함과 흥이 공존하는 호남춤의 백미 이매방류 <살풀이춤>이 무대의 막을 내린다.



대표 | 장만하(국립국악원 무용단 지도단원)

출연 | 장만하, 손상욱, 정현도, 김진정, 최성희, 이지은, 박지애



## Performance Description

This performance, titled *"Blooming on the Branch of Time"*, will showcase the restrained beauty of Gungjung Jeongjae (Court Dance) and the charm of Korean traditional folk dance to the audience.

The first stage is *'Chunaengjeon'*, the heart of Korean court dance choreographing the beauty of a chirping nightingale on a branch, followed by a court dance *'Geomgimu'* which illustrates the dynamic movements using a sword in each hand and strong spirits of the performers. Subsequently, *'Sanjochum'* a creative dance choreographed to Yun Yunsuk-style *Ajaeng Sanjo* (a free-style solo of 7-stringed zither), *'Seonbichum'* a dance that expresses the appearance of a scholar class called seonbi, who enjoy their life, into movements, and Han Yongsook-style *Taepyeongmu'* a court dance choreographed by Han Seongjun, the great master of modern Korean dance, to the beat of *Gyeonggido Danggut* (Tutelary rite of Gyeonggi-do province), will follow. Lastly, Lee Maebang-style *'Salpurichum'* one of the best folk dances in Honam region, where delicate beauty and *heung* (excitement) coexist, will close the stage.

## 공연순서 Program

1. 춘앵전 Chunaengjeon
2. 검기무 Geomgimu
3. 산조춤 Sanjochum
4. 선비춤 Seonbichum
5. 태평무 Taepyeongmu
6. 살풀이춤 Salpurichum





# 기억의 흔적 (창과 소리)

The Trace of Memory

2024. 1. 27. SAT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공연장 Museum Theater

## 공연내용

이번 공연에서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속 선조들의 음악과 가곡, 해방 후 음악과 가곡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고자 한다.

첫 무대는 나라의 안녕과 태평성대가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줄풍류 <천년만세>를 선보인다. 전통 성악곡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의 대표적인 곡으로 여러 가지 꽃을 사람에게 비유한 <모란은>, 19세기 이후 일반인들에 의해 새로 만들어져 불려진 아리랑 모음곡 <아리랑 연곡>, 평화로운 인트로 후에 경쾌한 리듬과 재미있는 선율로 구성되어있는 <술래잡기>, 조선시대 가곡 <사랑 거즌 말이>, 1960년 이후 불린 고가신조 창작곡으로 작곡가가 직접 노래하는 <달하 노피곰 도다샤>, 마지막으로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무대의 막을 내린다.



대표 | 고보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출연 | 고보경, 마석현, 조희제(거문고), 김한별(대금), 박찬희(타악), 이정연(정가, 신디), 여보원(소리), 남예진(가야금)



## Performance Description

This performance will take the audience on a journey through the popular songs and musics from the 500-year-long Joseon era and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The stage opens with *Julpungryu* (String ensemble) '*Cheon Nyeon Man Se*', wishing the peace and prosperity of a country last forever. Subsequently, *Pyeonsudaeyeop* '*Moraneun*' a Korea's representative female plaintive ballad that compares a human to a flower, '*Arirang Yeongok (Medley)*' that newly made and sung by the public since the 19<sup>th</sup> century, '*Sullaejabgi (Hide & Seek)*' the instrumental music with a cheerful rhythm and interesting melody after a peaceful intro, and '*Sarang Geojeutmali (Love Lies)*' a lyric song cycles with orchestral accompaniment in the Joseon era, will follow. Last but not least, '*Dalha Nopigom Dodasha (Dear Moon)*' a creative song of a singer-songwriter that sets new music to an old 1960s song and '*Areumdaun Nara (Beautiful Country)*' a legendary song which has been sung more than the national anthem, will end this performance.

## 공연순서 Program

1. 천년만세 Cheon Nyeon Man Se
2. 편수대엽 <모란은> Pyeonsudaeyeop 'Moraneun'
3. 아리랑 연곡 Arirang Medley
4. 술래잡기(기악곡) Sullaejabgi
5. 사랑 거짓말이 & 달하 노피곰 도다샤 Sarang Geojeutmali & Dalha Nopigom Dodasha
6. 아름다운 나라 Areumdaun Nara







총괄 | 박수진

기획·책임 | 이은미, 이민우

연출·기획 | 강경원

번역 | 남유주

음향 | 이민우

무대 | 주현규

발행일 | 2024. 1

발행처 | 국립민속박물관

디자인 |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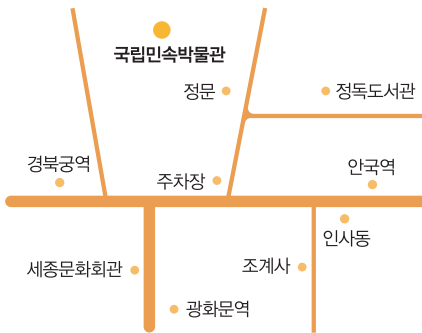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 공연관람 시 유의 사항

- 박물관의 모든 공간에서는 금연입니다.
- 음식물을 반입하면 안 되며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연장 입장 전에,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 공연장 내 사진촬영과 영상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박물관 실내·외에서는 자전거, 키포드, 브레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 시청역 4번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 안국역 1번 출구,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주 차** 경복궁, 서울현대미술관 주차장 이용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우)03045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Korea (03045)



## |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및 관람시간 |

- **03월 ~ 10월** 09:00 ~ 18:00
- **11월 ~ 02월** 09:00 ~ 17:00
  - 3월 ~ 11월 수, 토요일 야간연장 09:00~20:00
  - 6월 ~ 8월 일요일 및 공휴일 09:00~19:00
  -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 **휴 관 일** • 1월 1일, 설 당일, 추석 당일
- **입장료** 무료 ■ **문의** 02-3704-3102
- **홈페이지** [www.nfm.go.kr](http://www.nfm.go.kr)